[illegible]

拳銃을携帶警戒
보선안상뎡하든날일본중의원

보선안(普選案)을 상뎡 하든날 중의원(衆議院)안팟의 경계는 비상히 엄중하야 수장(首相)과 밋각대신의 관뎌에는 경관을증가하엿다는데 이중파하는 경관에게는 경시텽(警視廳)에준비하여두고 한번도 써보지안흔권총을휴대식히고 만일을 경계중이더라(동경뎐보)

松岡氏勞働講演
공회당에서성황리에마처

일본 로동총동맹주사(日本勞働總同盟主事)로일본 전국을대표하야『카라한』씨를방문하고도라가는송강구길(松岡駒吉)씨의입경을긔회로북풍회(北風會)에서씨를청하야 이십일 는밤 공회당(公會堂)에서 강연회를 연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뎡각이되자 풍설이사나웁도 불구하고 답지하든청중 은물밀듯 하엿스며연사중 신일용 (辛日鎔)씨가 등단하라하다가

본뎡경찰 서원의제지로

마참내단에올라보지도못하고마럿고그다음여러청중이고대하든송강씨가등단하야열렬한웅변을 토하자 장내의공긔는 매우긴장하엿는바 월족이 일홍이놉든송강씨의 이번열변는 실로만흔인긔를끌고 또만흔고취를준후 손영극(孫永極)씨의 폐회로 성황리에서 폐회하엿는데 때는마츰열시반경이엇다

논과집을하엿스니 세상에이런 일도잇슬낫간 하더라

牛峙小作會
네가지결의

전남광주군 우치면(光州郡牛峙面) 소작인회에서는지난십팔일 오후한시에 본면소작인회 회관에서집행위원장김도수(金道洙)씨사회로 림시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가튼결의를한후동네시에 산회하엿다더라

一、회부진행방침에대하야는본회간부는물론이요 일반 회원이성심성의로단결을굿게하는동시에 열심으로 소작운동을 하되 작년에 여러달동안 구금이되여그동안여러가지회무가 적체되엿스며 또는 본면회장 로남용(盧南鏞)씨는지금징역을 하고잇슴으로 디주놈은무리한수단으로 작년에자긔마음대로 못하는것을 복수(復讐)를하기로 작정이니 맹렬한운동을할일

一、반동적색채(返動的色彩)를가진단톄조직을파괴할일

一、무리한소작계약은절대로거절할일

金組員暴行
만장중에서
채무관계자를따려

지나난 음력이십오일은 함흥군오로리(咸興郡五老里)장날인데 동일은 부근촌락으로 부터만흔사람이 모혀드럿는데 졸연장판에큰소동이 이러낫는데 그내용을알어보건대 동디 금융조합서긔두사람이 동조합에 대한채무관계자 모씨를보고 채무관계에대하야 피차언쟁하든쓰테 란폭한금융조합원은 돈과사람을 구별치못하얏든지 전긔 채무관계자를 함부로란타하는중 별안간에일본인 리사가 또달려드러서무리한 매를더하엿다 한다이일을본 일반군중은 크게분개하야 이구동정으로 금융조합원의패악무도함을 말하는동시에 합리치못한 이사회를 저주하는마음이 더욱강렬하게되얏다더라(함흥)

卒業製作에熱中한金復鎭氏
십사세소녀를모델로사용

작년가을동경에열린데국미술뎐람회(帝展)에입선이된동경미술학교 됴각과김복진 (彫刻科金復鎭)씨는 요사히 경성에도라와락산미테잇는 서화협회에서 목하졸업제작에 착수중이다 조선에서이가튼재됴각가가 처음나게된것은 실로히 조선미술계의 자랑이라하겟스며 이번에는 조선소녀의좌상 (朝鮮少女의坐像)을 데작중인데 모델로는 시내와룡동 (臥龍洞) 팔십팔번디에사는 됴봉희(趙鳳姬)(一四)이라는 귀여운소녀를 사용중인데 김씨는손에홁을든채로긔자를보며 『아트리에(製作室)로 업시제작을한다 하는것은참으로억지의일이올시다그리고홁도맛당한것이업서서일본에서갓다 가쓰게되니참으로 불편한일이한두가지가아니며 됴각예술은그림과도달라서 조선에는리해자가 너무나적슴니다』 하며적막한우슴을보히엇다

『모델』을향하야 ──조각중의김씨──

小學校에窃盜
리과긔구를

지난십구일 오전세시경에 부산초장뎡(釜山草場町)데륙소학교(第六小學校)리과교실에 엇던자가 침입하야 리과용(理科用)긔구 일백오십원어치를 도적질하여 간것을 그익일에 발견하고 부산경찰서에 계출하여 현재수색중이라더라(부산)

悲慘한家庭
로동회에서동정

전남완도군 군외면달도(全南莞島郡郡外面達島)에 사는커문명(諸文明)씨는 자긔의 소유라고는 립추의 여지업고 남의뒤인집에서 먹으라 하고네식구가 근근이 보명을하다가작년십이월 초순경부터 신병으로우금 삼개월동안이나 신음중에일홍의먹을것이 업서서 그처자는부근 부락으로 도라다니며밥을어더먹으면서 한울두홉의 양미를 애걸하야 병석의남편을구한다는데 이러한 비참한참상을듯고 동도달도 로농회 (達島勞農會)에서는 아래와가튼동정을하엿다더라

金東燮三十錢 朴允燮 許在千 黃斗淵 金周完 申相根 李秉玉 許敏午 金洪彬 權求逵各二十錢 金正文 金仲燃 金京澤 金斗洪 朴守行 李鶴在 林壯之 朴化實 李士吉 朴在三 高完實 金長讚 權太順各十錢 金斗丙十五錢 黃津里金生圭三十錢 無名氏五十錢 金元日二十錢 合計五圓十錢(해남)

놀림감의흠치무리
김포에모힌상두쟁이 보는사람의구경거리

근일각처에서 공밥을 바들뿐아니라간곳마다 주먹맛 보기와간판에똥칠하기로 유명한 소위홍치교도들이 지난달부터

김포읍내(金浦邑內)에

잇는공회당(公會堂)에다정교부라는 간판을부치고 상투장이들이매일들낙낙함으로당디인사들은 이런무리를 그대로두는것은 김포에 수치일뿐아니라사회의해독이라고 쳐도회를 열자거니 집을빌리지말라거니 주민들사이에 여론이분분하다는데 수일전부터 또상투장이가 몰려단이기 시작하더니 소위치성인지무엇을 드린다고 백여원들들이어 제물을차리여노코 각관공서(各官公署)로청첩을하는등여러가지로 분망한모양이더니 지난십구일아츰일곱시부터몰려들어오는상투장이들은 형형 색색으로 몰려드는대 흑은벙거지속에서건을쓰내여 쓰는이도 잇고혹은쌋은머리에 망건씬이도 잇섯다 이와가티한사십명이 모이더니 일제히들어서서 신식례됴하드시

두주먹을

잔득쥐이고팔을올리엇다 나리엇다 업드렷다 이러낫다하는 광경은 처음보는 사람들이 허리가 부러지게웃겟다 그중에도 데일우수운것은한참그리하는중에 엇던 상투장이하나이 매우밧분모양으로 벙거지를쓰고들어오더니모자를벗으며 모자속에서 건을쓰내여쓰고가터서서 데조를 한번하더니마루아래 밀려나려와서 남과가티업되리려할 지음에 별안간엇던교도중에 상제는 참례못한다고꼭두잡이를 식임으로 친소위주먹마친겁두가 되여 한편구석에섯는양을보는구경군들은더욱요절을 하엿섯다는데 촌락으로부터 하나식둘식모여드는 상투장이륙십여명이 또무슨 강연을한다고(소위경성진정원)에서온 김상철(金相喆)이라는자가나와서 종교의

신앙이나

무엇이니한참짓거리더니 림시 정교부장이라는뎡순달이가 나와서 임원선거를한다고 중언부언하다가 제소위의사충돌이 되얏다고 한참동안수천거리다가 불평중에서 그러저러마치고 헤여젓다는데 이광경을본 몃개청년들은 공회당이망하려느냐가 별꼴을 다보앗다고한다더라(김포)

婚姻宴二千餘次
작년중경성내에혼인수효

경성부민적계(京城府民籍係)됴사에의하면대정십삼년중의혼인자의 수효는 조선인이일천칠백구십일건 일본인이 사백오십이건 합계 이천이백사십삼건의신랑신부가 생겻다는데 이제그혼인자의 년령을 비교하면다음과갓다

◇朝鮮人

年齡	男	女
十九歲以下	三四八人	一、〇三三人
自廿歲至廿四歲	六三九人	五四四人
自二十五歲至二十九歲	四三七人	八九人
自卅歲至卅四歲	二一九人	三七人
自卅五歲至卅九歲	八二人	九八人
自四十歲至四十九歲	一九人	一八人
五十歲以上	三人	無

◇日本人

年齡	男	女
十九歲以下	無	一五二人
自廿歲至廿四歲	五四人	一七九人
自廿五歲至廿九歲	一八四人	八一人
卅歲至卅五歲	一三九人	三二人
自卅五歲至卅九歲	五三人	七人
自四十歲至四十九歲	一七人	一八人
五十歲以上	三人	無

朝鮮人의早婚
아즉도남아잇다

년령비교는 별항과갓거니와 이것에의하야 조선인과 일본인을

昨夜鍾路小火
원인은연돌불완전으로

이십일일밤 아홉시사십오분경에 시내종로이뎡목 륙십구번디 장병한(張炳漢)의 상뎜인 동명상회(東明商會)에서는 불이나서 맹렬한바람에 일시는불꼿이 사나웟스나 소방대의 로력으로 즉시 진화되엿다는데 그원인은 그뒤집 연돌이 불완전한까닭이오 손해는 약십원가량이라더라

春雪!
중부조선이북 눈우에바람도

새울고꼿피며 싹트고입피는 중춘(仲春)시절이 몃칠남지 안흔 이십일일 정오부터나리는 눈은 삼동시절못지안타 이번눈에 대하야 경성측후소(測候所)의 말을드르면 이십일밤부터 발해만(渤海灣)연안에서 이러난 저긔압(低氣壓)이 서조선만(西朝鮮灣)으로흘러 중부조선이북으로 몰린것인데 방금 중부조선이북은 눈도몹시나리거니와 폭풍이자못 맹렬하다하며 아모리하야도 이십이일정오경까지는 나릴터이오 이십이일오후부터는 아주쾌히 개일터이라는데 이십일일오후 각디의텬후는 다음과갓더라(이십일일오후륙시긔)

京城 雪 正午부터降
仁川 雪 正午부터降
釜山 曇
大邱 曇
群山 雪
平壤 雪 六寸降積

吸血鬼東拓의暴虐
收穫皆無地에小作料强徵
안내이면소작권이동한다고

광주군부치면 (牛峙面) 수곡리 (水谷里)리백우 (李白宇) 는동양척식회사 논 십두락 밧이두락을삼년전부터 소작을하여 오든터인데 작년에는 한재로인하야 전곡에대하야 더구나 한홉곡식을엇지 못하엿슴으로 밧도조는 못주엇는데 지난십륙일에 동양척식회사사원소림 (小林) 이와 김판술 (金判述) 두명이전긔 리백우에게 와서밧도조를 주지아니하면 소작권을 이동하겟다고 무수히 위협을 함으로리씨는 밧에서는

한홉곡식

을먹지도못한 소작료를 내일수업다고 애걸하엿스나 종내듯지아니 함으로엇지할수 업시소작료를 주기로하고논과 밧은전과 가티소작하기로하엿다는데 일반은 동척에대한원성이 자자하다더라

남의妻를殴打하야 落胎식힌不良漢
남편의방탕을책망하엿다고 리웃불량한세명이구타처상

황해도송화군송이면무왕동(黃海道松禾郡松禾面富旺洞) 견태훈(甄泰勳)의 처(妻)김장녀(金長女)(三)는 동군련방면다암리 (同郡蓮芳面多岩里)김능곤 (金應坤)의 장녀(長女)로서열여섯살에 전긔견태훈(甄泰勳) 에게로출가(出嫁)하야 부부를 매저 만십륙년이 나자녀

삼남매를

낫코우금까지 동거하여오는중 남편되는 견태훈은위인이 똑똑치못할뿐아니라 그근처 불량한무리로 더부러주막집으로 도라다니며 술만먹고 가사를 도라보지아니하야 원래부터빈한한살림이 지금은집한간도업시 남의집협박살림을 하게되엿다 그럼으로 전긔 김장녀는 십유여년동안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중눈물을 먹음고 남편을 향하야 처자의장래를생각하야조치못한행동을 고치라고 여러번 간곡히충고도하엿스나종시듯지 아니함으로 분함을 참지못하야 남편에게불순하게도구럿고엇던 때에는 술집을차자가서 야단을 한적도한두번이아니엇섯다 그러케되니깐

부부사이

는차차로정의가소원하야불화하게지내든중멋칠전에 한동리에사는 견태훈의 친구최창화(崔昌華)최뎡근(崔貞根) 리태련(李泰璉)등삼인이 견태훈의 집에돌입하야 남편에게불순하게구는녀자는버릇을곳처주어야 한다고 녀자김장녀를 마당으로 끌고나와서 세사람이 로서제기차듯함부로때리어정신을못차리게되엿는데마츰남편되는 견태훈은 말을나아갓다가 도라오는길에이광경을보고정신을못차리고 너머져잇는 자긔안해를 방으로다리고 드러갓스나 불량한전긔삼인은 무엇이 부족하야방으로드러와때리랴고하는 것을견태훈이 가말니여말게되엿다는데 이제그때린원인을알아본즉 전긔삼인은 원래견태훈의 동무로들── 가티다니는터에피해자김장녀가 술집으로 남편을

차저단기

는협의로그런 란폭한 행동을한듯 하다하며이가든형편을 당한 남편은무심히 지내는중에 그녀자친뎡집에서 이런소문을듯고 녀자의 오래버니되는 김원식(金元植)이가의사(醫師)의 진단서를 첨부하야 가해자 삼인을거러 고소를제긔하려고수속중이라는데피해된형편을드른즉 무참하게 란타를당하야사면이 결일뿐만 아니라삼사개월이나 된복중의 아해는락태가되고 근이십일이나 지난오늘까지도 탱탱한 자리에누어서신음중이라는데 그 가련한 형상은참아보지못하리라더라(송화)

가치살지안는다고 녀자의피기름먹어
길에서주머니찬로녀자의팔을 두치나버혀먹은어리석은정부

전북금산군 제원면제원리 손만동 (全北錦山郡濟原面濟原里孫萬龍)이란자는 작년십이월경에 자긔조부묘를 허가업시 쓰고서 만약 경찰에게 사실이발각되면 잡힐가념려하야 도주를 하려할 제 전부터정을통하야 지내오든 동면동리 박성녀(同面同里朴姓女)가 가티가자고하며 『나는당신을 따러가살겟다』하야 마츰

나무하다가 墮落即死
밋그러저서 굴러나려즉사

의주군(義州郡)송소목에사는송모(宋某)는지난십오일오후한시경에 나무하려 동디구룡소뒤에가서 나무하다가 밋그러저서바위돌에 굴러나려서 즉사하엿다더라(의주)

可憐한少年
모친에게저버림바다

수원읍내남수리 (水原邑內南水里) 리상운(李相云)(一六)은열쌀때에 부친을일코 어머니와비참히지내다가열두살때에 무정한어머니가 재가함으로 상운은의지할곳이업서 눈물과 한숨으로세월을 보내고잇슴을 궁측히녁여삼일학교장『기레불』(英人)씨가의식우과 학비를 담당하야사년간학교에 공부식히다가 지금으로부터 이년전 그의사랑하는은인『기레불』씨가본국에도라감으로 상운은 의식과공부를의탁할곳이 업서상뎜사환으로 근근히 의식하고비참한 늣김을가지고이세상떠난아버지와무정한어머니를 생각하고 세월을보내더니 우연히 일개월전에자긔의어머니홍뎡임(洪貞任)(三八)이가친가에 옴으로 반가운마음과슬픈생각으로 맛나본즉 저와가티북청(北靑)으로가면 공부도 잘식히겟다하고 본월팔일에 수원서떠나서울왓다가 차표를 사가지고함흥(咸興)에내려려관에서쉬이다가뎡임와관계되야사는정익환(鄭益煥)을맛낫더니상운을만세교구경가라고 함으로 나갓다가려관에온즉 정임과정익환은간곳이업슴으로 어린생각에 울다못하야 어머니가양화역 차표를삿스며 의부가북청사람이라 하니 가면맛날가하고 양화역에와서차진즉 종적이묘연함으로 도로에서 방황하며 밥도못먹고울다가 마츰북청청년회 련합회집행위원『리축군』『주채희』량씨를맛나 자동차부에 무임승차식혀방금청년회관에서 숙식하고 어머니온곳을 차즈나 종적을알수

高城青年創立
청년십여인이

강원도고성군(江原道高城郡)에잇는 청년십여인은 지난십칠일밤에 고성읍 리상호(李相鎬)군의집에모혀서 청년운동의 근본정신에 합치되는 새로운청년단테를 조직하기로상의하고 고성청년회를 창립하엿더라(고성)

휘파람

▲전라도머나먼길에서부려온『휘파람』한마듸를 소개 하란다 ▲놀라지마라 전남화순군에서는설흔다섯살된늙은총각이열한살된 코흘리는 계집아이에게장가를갓단다 ▲계집아이의부모가 가난한탓으로 행여나 먹고살가하야 돈이십원에 자긔딸을로총각에게판것이라고 ▲그야말로늙은총각은돈주고사고도 걱정! 계집아이의 부모는 돈밧고팔고도걱정거리라한다 ▲아! 부모가 겨우코흘리는것을 면할만한 딸을 팔기까지에는 오작하야그랫스랴! 그러치마는 이따위잔악한 일이언제나 이세상에서업서질것인가

산養母를 죽엇다고申告
그뒤에도디횡령

전남순텬군(全南順天郡)황전면 (黃田面)수평리(水坪里)천유조(千有祚)란 사람은 사라잇는자긔량모를 죽엇다고 교묘히수속을하야 가지고토디 천부를이전하야 갓다는고로 그량모되는천유복(千有福)이는 분개함을 참지못하야 즉시량자 용조를상대로 광주디방법원 순텬지텽검사국(光州地方法院順天支廳檢事局)에 고소를 데긔하얏다는데 그내용을 됴사한즉 전긔천유복이는 일즉이자긔남편이 이세상을떠나고 과부로지내 오다가아모리혼자몸이라도 호적에 일홈은잇서야 한다하야 성은김씨나 천소사(召史)라 하여왓다 그리하다가 민적정리시를 당하야천유복이라고 개명하고 호세나무엇이나 내유은 김씨인천유복이가 전부다하엿스며 그전에는 재산이아모것도 업더니 천유복이가 근실히벌어 토디마직이나 작만하야 살기가 편하게됨으로천씨성을가진자로만 조차전긔천용조로 량자를 삼아 논삼두락을주엇는데 용조는엇지 하얏는지 삼두락논을 파라업세서 량모와 불합하여 천유복이는리웃면서면으로 이사를갓는데 뜻밧게 용조가천유복이는 명치사십사년에 이세상을 떠나고업는사람이라고 교묘히수속을차리고 토디천부를 상속하야갓슴으로천유복이는 긔가막히어 즉시전긔와가티 고소를 데긔한것이라더라(순텬)

連理枝 (23)
소요산인
지사의방문

이편지를본때에온집안의소동은 여간이아니엿다『도밍고』와『마리』는 울엇다『쫄』은 깜작놀나서 가만히잇섯스나 조금만잇스면놀난맘이지나서성을낼것가텃다『빌지니』는모친의얼골만물끄럼이바라보고아모말도아니하엿다『당신께서는 지금우리들을 바리고 가시겟슴닛가』『말게릿트』는『홀』부인에게 말 하엿다『아니요』『말게릿트』씨이애너의들도들어보아라내가당신을떼고 갈리가잇겟소 나는가티살어왓스닛가 죽기도가티죽지요나는당신의친절한맘으로 비로소 행복스러운몸이 되엿는데요 내몸이 쇠약한것은 옛날에 고생을한까닭이지요 고모의무정한것과 남편의자고가내속을다써엇서요그러나 이번한한 오두마사리를한뒤부터는 고향에잇서서 집안재산을잇고살때보다행복스럽기도하고맘도편하엿서요』

이말을드를때에 집안 식구들은 눈물을흘리다『홀』은『홀』부인을부둥켜안고 말하엿다『나도 당신을떠나지안슴니다나는인도에가지안어요 우리들은 당신을위하야일하지요그려치안슴닛가 어머니우리는당신을고생식이지는안슴니다』

그러나여러사람중에서데일깃부다고 입으로는말을 하지아니하나 속맘으로데일깃봄을 늣겨는것은『빌지니』엿다 그는 이날온종일 지겹게 지냇다 이『빌지니』의깃버하게된것이이날절거움중의압축이엇다

이튼날아츰해가도롭씨에온집안식구가 모여들어서 식사를하기전에 아츰긔도를 가려올니노란즉『도밍고』가하인을들쳐다린엇던신사가 차저온다고 알지를하엿다 그는『부르도네』씨엿다 그가오막집문안을 들어선 때에는 여러사람이 식탁압헤 늘어안젓섯다『빌지니』는 이디방습관을 딸어가리와 밥을 식탁우에 놓어노코 그외에 갓살문감저와 갓다온『바나나』를 것들여 노앗다 온접시대신에 바가지를 쓰고 상보대신에는『바나나』입을갈엇섯다 지사는 이구차한살님을 보고 첨에는 놀난모양이엇스나『홀』부인을 향하야 공부가밧분 까닭으로 사사일을처리 할틈이 업섯노라고 발명부터 하면서다시말을이어『부인께서는파리에 문벌이 조코재산이 만흐신고모가게시지요 그고모님께서 당신에재산을 물녀주실 생각으로당신을 불오시오』

『홀』부인이 몸이약한 까닭으로그런 먼려행을 할수업다고한즉『부르도네』씨는뒤를이어『그러치만 부인도 저런귀여운어린 따님에게 까지이막대한 재산을 상속식히지 안케다고는 생각지 안흐시겟지요 실상은 부인의고모님께서 부인을 불너오도록하여달나고 정부에 말슴을하셔서 정부에서는 날다려 필요한경우에는 내권력이라도 쓰라는처분이잇섯슴니다 그러치만 나는내 권력을 이식민디에 사는인민들의행복을 위하여서만 쓰는것인즉부인의 임의로 생각하셔서이삼년동안만 참고지내시기를 바람니다 당신따님이 잘양육되는것과부인의 일평생행복이 이이삼년동안에 달넛슴니다 사람들이이섬을 차저오는 것은무슨까닭인가요 행복스럽게 살어보자는것이 아니겟슴닛가 고향에몰어가서 고향에서 행복스럽게된다면 더욱유쾌한일이 아니겟슴닛가』

지사는 이와가티 말을하고하인이가지고온화가가득찬커다란견대를 탁자우에다 나려노코 말을이엇다『이것은부인의고모님께서 따님의 결혼준비에 쓰라고 보내신것이오』다음에지사는『홀』부인에게 곤난할일이 잇는때에 웨자긔게와서 뭇지아니하엿느냐고 친절한책망을 하고 또그것을 하지안는 부인의쓸쓸한맘세를 칭찬하엿다 그때에『쫄』은 입을벌어서 말하엿다

『지사령감, 우리어머니는 령감께 말슴을하엿건만 령감께서 잘보아주지를 아니하섯지요』

『자데도 잇슴닛가 부인』하고『부르도네』씨는 쫄부인에게 물엇다

『아니요 이애는 내친구의아들임니다마는 이애와『빌지니』와는 남매나달음업슴니다 우리는 두애를 똑가티사랑합니다』고 부인은 대답하엿다

『지금한말은 아직나이 어리닛가 하는말이지 인제세상물정을 알게되면 놉흔디위에잇다는사람이 그런관계로 얼마나애를 쓰는지 알게될것입세나』라고 지사는 쫄에게 대답하엿다